

남원 글로벌 캠퍼스 ‘K문화 성지’로

전북대, 외국인 유학생 270명 초청 문화·관광자원 체험 교류 행사
문화교류 통한 국제 협력기반 확대...하반기부터 내년 신입생 모집

남원시가 전북대학교(이하 전북대)와 협력해 글로벌 교육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남원시는 최근 전북대학교 한국어학당에 재학 중인 27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초청해 남원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남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기회를 제공했으며, 전북대와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남원시는 2023년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전북대학교와 함께 공동 선정된 이후, 옛 서남대학교

부지를 활용한 남원캠퍼스 설립을 목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서남대학교 폐교부지를 매입하고, 현재 전북대와 캠퍼스 관리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리모델링 및 주변 정비, 교육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대는 올 하반기부터 남원 글로벌 캠퍼스 신입생 모집에 나서 2026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캠퍼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남원시와 전북대 간 협력을 넘어,

다양한 국내의 기관과의 문화교류를 통해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하려는 남원의 전략적 움직임의 일환이다.
행사에 참여한 전북대 유학생들은 남원의 주요 명소를 방문하며 남원의 예술과 자연, 문학적 감성을 직접 체험했다.
5월 춘향제 기간에도 부산대학교 외국인 유학생과 몽골 60만 학교 청소년들이 남원을 방문해 전통공연 및 길놀이 행사에 참여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교류 행사가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조성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 기회를 통해 남원이 세계 인재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산림조합, 올해도 어르신 쉼터 ‘효도의자’ 기증

2015년부터 매년 100개씩
마을 안길·시장 등 74개소 배치

고창군산림조합이 가정의 달을 맞아 고창군민을 위한 ‘원목효도의자’ 100개를 고창군에 기증했다.
이번 기증행사는 어버이날과 가정의 달을 기념해 마련된 것으로, 고창군산림조합은 벌목과 간벌 작업으로 생긴 나무를 활용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00개씩 총 1100개의 효도의자를 기증해 왔다.
기증된 원목효도의자는 부안면 감산리 검곡마을 외 74개소의 마을 안길, 시장길, 버스 정류장 주변 등에 설치돼, 보행이 불편한 지역 어르신들과 주민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원목효도의자는 원목 부산물을 활용해 제작된 제품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과 사회공헌을 동시에 실현한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기후 위기 대응과 자원절약이라는 환경적 가치



고창군산림조합(조합장 김영건)이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2일 고창군민을 위한 ‘원목효도의자’ 100개를 고창군에 기증했다.

를 함께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김영건 고창군산림조합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올해

도 원목효도의자를 기증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주민 주도 관광업체 창업·경영 지원

정읍시, 22일까지 주민사업체 공모...숙박·음식 등 콘텐츠 발굴

정읍시가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관광두레’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정읍시는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해 관광사업체를 창업·경영할 주민사업체를 오는 2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사업에 관심있는 주민들과 한국관광공사 오충섭 전북지사장, 최준양 시 관광체육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공모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관광두레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숙박, 식음, 여행, 체험, 기념품 등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업화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 공동체의 자립 성장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백정록 정읍PD가 사회를 맡은 설명회에서는 ▲

공모 절차·지원 사항 안내 ▲완주군 황미선 PD의 성공 사례 발표 ▲백정록 정읍PD의 정읍 관광 진단·사업 방향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주민사업체 공모에는 3인 이상의 공동체로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정읍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사업체는 서류 심사, 온라인 교육, 현장 실사, 발표 및 종합 평가를 거쳐 7월 말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체에는 최대 5년간 1억1000만원 내의 지원금과 함께 역량 강화 교육, 컨설팅, 시범 사업, 법률·세무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전북 도민체전·장애인체전’ 상징물 선정

엠블럼·마스코트 등 6개 부문

고창군이 오는 9월로 예정된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및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의 홍보와 각종 대회 안내를 위한 상징물을 최종 선정·발표했다.
고창군은 전북특별자치도민(장애인)체육대회 상징물심사위원회를 열어 전 국민 대상의 공모를 통해 엠블럼, 마스코트, 포스터(도민·장애인), 슬로건(도민·장애인) 6개 부문에 총 331점의 작품을 심사했다.
관련 전공 대학교수, 미술협회 등의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문별 당선작, 각작 중 12점의 작품을 상징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포스터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창 고인돌과 고창읍성, 고창갯벌을 배경으로 역동적으로 달려가는 선수의 모습을 이미지화해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찬 고창군의 이미지를 표현했다.
엠블럼 당선작은 ‘역사, 문화, 생태자연이 풍부한 활력 넘치는 고창에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힘찬 전진’이라는 컨셉으로 고창의 ‘고’와 힘차게 전진하는 전북인, 이어 고창의 문화유산인 고인돌을 조화롭게 표현했다.
마스코트 당선작은 고창의 군조인 뽕제비갈매기를 모티브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개천도시 고창군의 지리적 상징성을 담았으며 한쌍의 뽕제비갈매기가 함께 성화를 들고 달려가는 모습을



고창군이 최종 선정한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와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 상징물(뽕제비갈매기).

을 통해 스포츠 축제 분위기를 친근하고 사랑스럽게 표현했다.
슬로건은 양대체전(도민·장애인) 각각 ‘세계유산도시 고창에서 뭉쳐라 전북의 힘’, ‘행복도시 고창에서, 감동가득 희망체전’으로 전북자치도민이 하나되는 화합과 단결의 체육대회를 표방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선정된 상징물들은 대회의 다양한 분야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올해 고창군에서 열리는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전과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도민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는 만큼 고창군민을 비롯한 전북자치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정읍 ‘지식산업센터 건립’ 국비 160억 확보

중소벤처부 공모 선정...내년 착공 2029년 완공 목표

정읍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도 신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공모에 선정돼 국비 160억원을 확보했다.
정읍시는이를 통해 바이오와 청년창업을 위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며 지역 바이오산업 육성과 청년기업 유치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 안에 여러 기업이 입주해 고부가가치 활동을 영위하는 아파트형 집합건축물로 시는 공모에서 ‘바이오산업 집적’과 ‘청년창업’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이어 바이오기업 육성 지원과 청년 중심 기업을 위한 맞춤형 입주공간 제공을 골자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아 최종 공모 선정에 성과를 거뒀다.
신정동에 들어설 지식산업센터는 60실 이내의 기업 입주 공간과 함께 공용 지원시설, 편의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시는 신정동 연구개발특구 내 ▲첨단방사선연구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독성과학연구



정읍시가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건립하게 된 지식산업센터 조감도.

소 등 3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미생물센터의 바이오기술 사업화 지원 기능을 적극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해 2026년 첫 삽을 뜨고 2029년 완공을 거쳐 2030년부터 본격적인 기업 입주를 시작한다는 목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기업의 입주 애로를 해소하고 활발한 기업 활동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